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 발견 하려면 나에게 놓으세요"

☞ 17면에서 계속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이대로만 가지고 있을까, 이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가져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심각하구요. 그 한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가 모두 심각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온통 여러가지를 다 찾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여러가지를 어떻게 바깥으로 다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 이름들을 말입니다. 이름을 아무리 불러봤자 그건 헛 거예요. 진실한 내 마음 하나에서 일체 만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부터 수행해서 나부터 알아야 찾을 수 있죠. 또 나부터 찾아야 부처님의 마음도 찾고 일체 만물의 마음을 다 찾을 것 아닙니까.

느냐는 얘기입니다. 살아나가는 데 고통을 덜고 고통에서 벗어나 좀 자유스럽게 살아보자 하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살아나가는 거 보니까요, 일일이 날짜를 봐서 이사를 가고, 팔자운명을 물으러 다니고 삼재가 걸렸다 하면 야단들이고 여간 귀찮은 게 아니예요. 또 이것을 먹으면 안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되고, 안된다는 건 왜 그리도 많은지, 그러면서 집에 남편이나 자식이 다 산 부처인데, 산 부처는 팽개쳐두고 혼자 백일기도를 한다고 나가니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립니까. 누구를 위한 백일기도며, 지구가 어디 백일만 돌아가고 안 돌아간답니까. 항상 끝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인데 내 마음안으로 언제나 관하면 될 것을 기도처가 어디 따로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겠습니까? 집에 엄마가 없으니

"수억겁 살던 관습 · 집착 욕심과 애정 · 원한 등이 쌓여 꽃이 피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몸 속의 의식들이 말입니다. 과거엔 지나갔으니까 없고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자기하고 인연이 돼서 바로 지금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가지 못하고 여러분 몸 속에 이미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속의 의식들을 조복받기 위해서 구비구비를 넘어가야 하니, 지금 현실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찾는 격입니다.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말입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내가 적어지고, 크면 큰대로 내가 커지고 그래서 똑같이 맞추어야 이게 둥글어지죠.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놔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돌아가겠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은 바로 한생각이죠. 여러분은 그냥 생각이지만 깨달은 부처님들은 한 생각입니다. 한생각! 왜냐하면 한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들의 의식들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로 계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조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전부 보살로 화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말을 해야만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잘 집어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잘 먹지 않으면 소화가 안되고 걸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입에 맞지 않는다고 안먹는 수도 있거든요. 이러니 어떡합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집어 먹어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이 바로 모든 개체가 하나로 귀합되어 조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가정에서도 한 생각을 했을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하나가 되죠.

여러분이 살면서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도리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소생이 하는 것이고 대불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생존해 살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용무로써 작용하는 용무공법이죠. 그러니까 무의 법 유의 법을 둘이 아니게 굴려서 무의 법에서 유의 법으로 돌아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무조건 남을 좇아가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보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말과 뜻과 행입니다. 말과 뜻과 행을 보고 그것이 사람사는 진리와 같으면 따르라고 했습니다.

어느 종교는 이런 데가 있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군에도 보내지 않고, 한 가족이 온통 집에서 기도만 했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미쳐서 자살을 하니까 그 자식들도 따라서 다 자살을 허버리니 남는 건 부인 혼자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한 생각에 얼마나 잘못돼 돌아갔는지 가족이 다 멸망한 셈이죠. 그러니 이 종교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

애들이 밥을 해먹고 남편은 또 따로 알아나고 이러니 가정파탄이 생기죠. 이런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따라야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자기를 찾을 권리도 있고, 자기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엄연히 주어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예 꿈에라도 형식적인 고깃덩어리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름을 믿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주장자, 즉 자기 뿌리만을 똑바로 믿고 진짜로 믿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싹이 뿌리를 무조건 믿는 거지 어떻게 남이 믿어라 믿어라 이래서 믿습니까? 자기 종성을 진짜로 믿어야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대신 죽어 줄 사람도 없고, 아파 줄 사람도 없고, 잠을 자 줄 사람도 없고, 똥누고 밥먹고 이렇게 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각기 자기 모습 속에서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도 공생이요, 공심이요, 공체요, 공용이요, 공식화하고 모두가 같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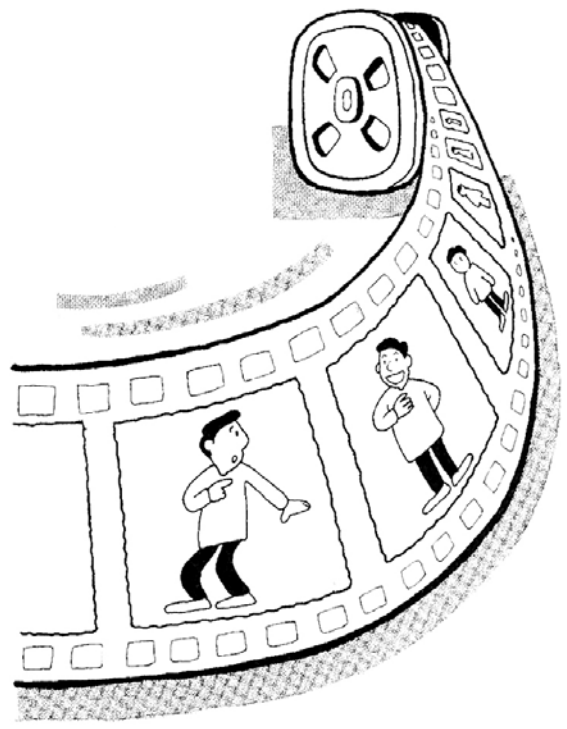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무〉라는 책을 통해서 스님을 처음 알게 됐는데 공부를 해가던 어느날 가만히 앉아 있으니, 부처님 형상에서 양미간에 물줄기가 하나 쫙 뻗치더니 고기 한 마리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있더니 수많은 염주알이 크게 요등을 치더니 용으로 변하더군요. 그리고는 잠잠해졌습니다. 또 한번은 꿈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저도 거기서 구경하다 낚시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낚시가 그물로 변하

서 주인공에 맡기고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만 제 눈으로 영의 세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언제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밀어넣으면 또 나오고 밀어넣으면 또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심안을 열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으라고 그랬으니 믿어야죠. 뭐가 궁금합니까. 제 뿌리에서 제 싹이 나서 제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 뿌리를 의심합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잎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 뿌리에서 나는 제 나무가 뭣이 그렇게 궁금하고 의심이 갑니까? 그냥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까? 그대로 믿는다면 연방 되풀이되지를 않지만, 못 믿는다면 자꾸 제자리걸음을 걸어야죠. 좀 푹 놓고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 죽든지 살든지 생사의 문제 건도 거기에다 그냥 놓으세요. 언제 죽든지 살든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말구요.

또 남을 건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몸뚱이 속에 중생들부터 건져야 남을 건지지 내 몸뚱이 속에 중생들도 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유마 거사도 병이 났을 때 중생들이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생은 바깥의 딴 중생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중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게끔 그냥 몽땅 믿으세요. 남김없이 믿고 거기 놓으시면 돼요. 그 마음이 그렇게 생길때는 '참 감사하구나 주인공' 하고 놓으시구요.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일체 공심을 말합니다. 공심 말입니다. '참 고맙구나' 하고 거기다가 놓으면 그게 입력이 되죠. 그래서 공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공심을 몰라 가지고서야 어떻게 공용을 합니까.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도 건져지고, 들어도 건져지고, 그

저 가고 오지 않아도 가고옴이 없이 가고오게 되어 건져지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을러 공부진전 안됩니다

문 공주에서 온 학생입니다. 스님을 만나고 공부한 지가 일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너무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진전이 없습니다. 스님 말씀 듣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답 부처님 법을 알려고 하고 배우는 것은, 또 잘하고 못하는 것은 게으르거나 잠자고 그러는데 있는 게 아니예요. 잠을 자는 것도 참선이요, 깨어 있는 것도 참선이요, 서는 것도 참선이요, 앉는 것도 참선이요, 일하는 것도 참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와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행선이나 그게 전부 참선 아님이 없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참선이 돼요. 그러니 내가 게을러서 이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주인공, 너만이 너의 몸을 형성시켜서 이렇게 끌고 가니까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너 뿐이야' 하고선 그냥 아예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해버리고 흔들가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공, 네가 잘 알아서 끌고 가.' 하고 맡겨 놓기만 하면 돼요. 아주 하기 쉽고 간편한 것이 바로 이 공분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서남북 佛名 다른 까닭

문 언젠가 법문하실 때 아촉은 동방에서 나오고, 미륵은 서방에서 나오고 부처님은 북쪽에서 나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동서남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스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 해가 질 때는 동방에서 북쪽으로 해서 서방으로 떨어지고, 해가 뜰 때는 서방에서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이름해서 미륵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신 뜻은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치려니 방편으로 그랬던 거죠. 예를 들어서 한마음 속에서 이것 나오고 저것 나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하고 '여보' 하면 남편

"살아서 열반 모르면 죽어서도 열반 못해"
"내 마음안에 관하면 그곳이 바로 기도처"

합시다. 또는 전쟁이 일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소임 맡은 군인들은 해병이면 해병, 육군이면 육군, 공군이면 공군 다 맡은 바대로 소속이 되어서 부르면 그냥 쏙 모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격이 있는 만큼 부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자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달리 생각지 마시고 오로지 자부처를 믿는 그것부터 실천을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다 어디서 합니까? 자기가 전부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자기를 못 믿습니까? 보게 하는 것도, 듣게 하는 것도, 말하게 하는 것도 전부 자기 속에서 하게 하고 자기 중심처에서 하게 하는 거지 딴 데서 나오는 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거기를 알면 무의 법도 유의 법도 자유자재하게 들이고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개개인이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고 알면 저절로 세상이 편하게 되는 거죠.

꿈에 염주가 용으로 변해

문 저는 일산에서 온 신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공부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고 큰스님께 점검

더니 큰 고기를 한 마리 건져 올렸는데 고기를 다시 바다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과정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마음에 의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습니다.

답 고기를 건진 놈도 당신이고, 고기도 당신입니다. 염주알이 화하는 것도 당신이요, 또 당신이 알 일이며 당신의 법이예요. 그것이 모두 공부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당신에게서 나오는 그 속에다 다시 놓으세요. 죽어야 죽은 세상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고, 죽고, 또 죽어서 살아 생전에 열반을 해야지, 살아서 열반을 모르면 죽어서도 열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죽으러 들어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차피 앞으로 한번은 죽을 거, 몸도 죽는데 이 몸이 죽기 전에 마음이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죽기 전에 마음이 먼저 죽어야 죽은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 몰라 답답해요

문 저는 청주지원 신도입니다. 큰스님의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이제는 스스로 어느 정도는 제 몸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어

노릇하고, '에, 아무개야' 하면 아들 노릇하고 이러듯이 그것이 전부 한마음 속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이 없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 하나에서 천백억 화신이 나셨다는 거예요. 천백억 화신이라면 그건 숫자가 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의정이란 무엇인지…

문 저는 아직 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100% 못 믿더라도, 또 제가 외부경계와 내면의 경계를 100% 돌려놓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있더라도, 어떤 의정을 꽉 잡고 간다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이 니게 하는 것도 네가 나게 하는 거다.' 하고 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에 대해서 여쭙니다.

답 억지로 내어서 하는 것은 의정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디서 그림자같이 나타났다 할 때 '아, 저건 뭘까?' 하고 갑자기 의정스러운 게 있어야 의정이지, 번연히 여기 있는 걸 알면서 그걸 가지고 억지로 의정을 낸다면 그게 무슨 의정입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아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를 만났을 때 즉, 부(父)와 자(子)가 둘 아니게 상봉했을 때, 예를 들어 과거 자기가 일겁(一劫)이라고 한다면, 그 일겁이 한 찰나일 수도 있고 백천 만억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어저께가 일겁이 될 수도 있고 천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부터 알고 무의 법에 채찍을 맞아야 거기에서 진실로 의정이 나죠.

예전에도 얘기했죠. 어느 묘지 옆에서 말입니다. 저 묘지는 애비의 묘지이고 이것은 그 아들의 묘지인데, 이 아들이 애비 한테로 오면 애비가 하나가 되고, 또 애비

마음속에다
모든것을 놓고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똑같이 맞추어야
둥글어 집니다

가 아들한테로 가면 아들이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냐 하고 물었을 때 그것을 모르니까 의정이 날 수 밖에요. 그게 의정이에요. 그렇지 않고 번연히 아는 걸 의정을 일부러 내가지고 의정한다는 건 그건 의정이 아니고 망상일 뿐이예요.

그러니까 의정을 낸다 안 낸다 하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스스로 생활 속에서 조그만 거라도 체험이 되는 게 있으면 우연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연이란 없다, 내가 있는 이상 우연은 없다. 참 감사하구나.' 하고 관하고 가세요. 그렇게 가다보면 또 체험이 되고 잘된 건 감사하게 놓고 안된 건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자꾸 놓고 가다보면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복이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완전히 발견이 되는데 한창 배울 때는 의정이 많죠.

언젠가 이런 얘기도 했죠. 예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다보니까 쓰러졌어요. 그런데 물줄기 내려가는 소리에 겨우 깨어 엉금엉금 기어가서 물을 한 모금 먹으려니까, 내면에서 하는 소리가 물 한 모금이 천 모금이 될 수도 있고, 삼천 모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물이 삼천 모금이 한 모금이 될 수 있고 한 모금이 삼천 모금이 될 수 있다니 그게 언어도단이지 뭡니까. 그러나 그때서야 '아하! 이거로구나.' 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구요. 그게 의정이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계 어디를 돌아봐도 이 불교를 말하고 불교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얘기는 빼놓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놓아야 한다는 말을 안한다는 거죠. 이 세상도 모두 자기로부터 열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입니다. 첫째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 마음이 보배이며 자기 몸도 소중하죠. 부모님의 은혜를 입어 태어난 몸이라 함부로 굴려서도 아니되지만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되는 것도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이 몸을 함부로 굴리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떨쳐버리는데 버리지 않으면서도 버리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몸을 자기 몸으로 아니까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자기 몸이 아니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수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집합소이니 내 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집도 아닌데 함부로 허물고 부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생들의 집이라 생각하고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몸뚱이는 헌깨비 같고 구름 같고 이렇다니까 마구 써도 되고 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안다면 소중하게 다스리면서 이끌어가죠. 그래야만 세세생생을 두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자유자재로 나툴 수 있을 테니까요.

협찬 이종진 · 마영자 · 이봉국 · 김영님